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경애¹, 허성은^{2*}

¹신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교수, ²신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치위생학과 교수

Eff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Elderly on Ageism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s elated to the elderly-

Kyeong-Ae Jang¹, Seong-Eun Heo^{2*}

¹Professor,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Silla University

²Professor,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Si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해지각은 노인차별주의($r=-.310$)와 노인관련경험($r=.185$)에, 노인차별주의는 노인관련경험($r=-.323$)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인관련경험이 노인인권침해지각과 노인차별주의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교육에 노인관련경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초 고령화 사회의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노인, 인권, 노인차별, 노인관련경험, 치위생(학)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mpact of human rights violations on elderly discrimin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lderly-related experiences. After conducting a two-month survey of 143 dental students in some parts of Busan from September 4, 2020,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s of elderly-related experiences using the SPSS 26.0 program. Dental hygiene students' perception of infringement on elderly human rights was shown to be significant in elderly discrimination($r=-.310$) and elderly-related experiences(.185), indicating that elderly-related experiences were partially mediated in elderly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elderly discrimination.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in a super-aging society by reconsidering the need for senior-related experiences in dental hygiene and education.

Key Words : The aged, Human right, Ageism, Experiences related to the elderly,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rresponding Author : Seong-Eun Heo(gitjddms0928@naver.com)

Received March 17, 2021

Revised April 4, 2021

Accepted April 20,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총인구에서 20% 이상 차지할 경우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 하였다[1].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5년에는 20.3%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 특히, 2025년에 예측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일본 27.3%, 스위스 23.4% 등 오랜 기간 고령사회를 준비했던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유례없이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는 예견된 바가 아닐 수 없다[1,3,4].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한국사회의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판단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 간 통합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됨에 따라 고령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세대 간 대화와 세대 간 조정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5]. 가령, 인간 그 자체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 당연한 권리로서, 침해당할 수 없는 절대적 인간의 권리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4]. 특히, 노인 인권은 노인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개인의 보편적 인권 그 자체로 판단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4,5]. 이에 우리 사회의 노인 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보았을 때, 노인 인권을 지각하고 관심을 두는 정도가 매우 낮아 국가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하지만 그 실효성과 효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6]. 이는 과거와 달리 핵가족 중심의 현대사회를 사는 젊은 세대의 노인 세대와의 접촉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세대 간 대화와 공감 능력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5]. 결국, 한국 대학생의 노인 차별 인식과 노인 관련 지식수준이 외국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6], 우리 사회의 노인 세대에 대한 차별과 노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시각이 필요할 때이다[5]. 이에 세대 간 공감과 소통 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하였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의 노인 세

대에 대한 노인 관련 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3,7], 세대 통합을 위한 세대 간 접촉의 기회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학에서의 노인 관련 강의 수강 및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 등 노인관련 직·간접경험이 젊은 세대의 올바른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3,7,8], 젊은 세대로 대표되는 대학생의 노인 관련 경험에 주목하여 노인 인권과 노인차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건강한 노인의 삶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신건강은 물론 노인의 전반적 복지에 기여하는 구강 건강과 관련하여[9], 고령화 시대의 노인 구강 건강 관리 역할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8], 노인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5C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는 노인 인권 및 노인 차별주의에 대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10], 노인 인권 지각 정도가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 관련 경험의 매개효과로 검증한다면 노인 구강 건강관리와 관련한 치위생 교육과정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정도 와 노인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통합은 물론 노인 관련 경험 확장과 관련한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재고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고령화 시대의 인권이 노인 인권이라는 개념 하에 [5],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노인 인권 침해 지각이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 관련 경험의 매개효과로 검증하여 세대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의 노인 인권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물론,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노인 관련 경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젊은 세대의 노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1449-202008-HR-006)을 받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었

다. 설문조사 전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의 참여를 허락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며,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80%, 효과 크기 0.5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43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총 168부가 배부되었다. 설문지 작성 시 불성실하거나 누락되어 있는 설문지 25부를 제외하고, 최종 설문은 143부를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노인 인권침해지각의 측정 도구는 강과 임[11]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인권침해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 차별주의와 관련된 측정 도구는 이[10]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 차별주의의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주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 관련 경험의 측정 도구는 장과 허[12]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유무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으며, 노인 관련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고,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과 KMO값은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 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 는 노인 인권침해지각 0.817, 노인 인권침해지각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인권침해 0.691, 신체적 0.828, 재정적 0.827, 성적 0.656, 타인 방임 0.789, 자기 방임 0.710으로 나타났다. 노인 차별주의 Cronbach's α 는 0.728, 노인 관련 특성 0.687로 신뢰도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도구의 내적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ver. 26.0 for windows, IBM SPSS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노인 인권침해지각, 노인 차별주의, 노인

관련 경험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각 요인별 관계는 상관분석과 노인 관련 경험의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고, 검증(Sobel test)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97.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2학년 9.8%, 4학년 25.2%, 1학년 26.6%, 3학년 38.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4세 이상 10.4%, 20~21세 35.7%, 22~23세 53.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140	97.9
	Male	3	2.1
Grade	1	38	26.6
	2	14	9.8
	3	55	38.5
	4	36	25.2
Age	20~21	51	35.7
	22~23	77	53.9
	More than 24	15	10.4
Total		143	100.0

3.2 노인인권침해지각, 노인차별주의, 노인관련경험 정도

연구대상자의 노인 인권침해지각, 노인 차별주의, 노인 관련 경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노인 인권침해지각의 평균 점수는 3.01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신체적 3.75점, 성적 3.07점, 재정적 3.06점, 자기 방임 2.87점, 타인 방임 2.60점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차별주의 정도는 2.62점, 노인 관련 경험 정도는 1.0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Perception of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ageism,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N =143

Classification		M±SD
Perception of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Emotional	2.70±0.59
	Physical	3.75±0.79
	Financial	3.06±0.47
	Sexual	3.07±0.65
	Others Neglect	2.60±0.73
	Self-neglect	2.87±0.74
Total		3.01±0.47
Ageism		2.62±0.45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1.06±0.76

3.3 노인인권침해지각, 노인차별주의, 노인관련경험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노인 인권침해지각, 노인 차별주의, 노인 관련 경험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노인 인권침해지각은 노인차별주의($r=-.310$)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노인 관련 경험($r=.185$)은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 관련 경험($r=-.323$)과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elder discrimination and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1	2	3
1	-		
2	-0.310**	-	
3	0.185*	-0.323**	-

** $p<.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2: Ageism 3.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3.4 노인 인권침해지각이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관련경험의 조절효과

노인 인권침해지각이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 관련 경험의 조절 효과는 Table 4와 같다. [모형1]은 노인인권침해지각과 노인 관련 경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노인 인권침해지각*노인 관련 경험(XM)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도 노인 인권침해지각*노인 관련 경험(XM) 빈도가 노인 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1] $F=14.263(p<.001)$, [모형2] $F=34.444(p<.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R^2=0.157$, [모형2] $R^2=0.414$ 로 R 제곱 변화량이 0.257 증가하였다. [모형2] 노인 인권침해지각과 노인 관련 경험(XM)빈도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7.894$, $p<.001$ 로 노인 인권침해지각과 노인 관련 경험(XM)빈도가 노인 차별주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권침해지각과 노인 관련 경험(XM)빈도 $\beta =-2.775$ 로 노인 인권침해지각과 노인 관련 경험(XM)빈도가 증가하면 노인 차별주의가 감소하였다.

Table 4. Moderator effects of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of between perception of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and ageism

Variable	Model I			Model II		
	B	β	t	B	β	t
Constant	3.558		15.597***	1.749		5.874***
1 (X)	-0.252	-0.260	-3.311**	0.334	0.345	3.424**
2 (M)	-0.163	-0.275	-3.507**	1.353	2.277	6.904***
1*2(XM)				-0.480	-2.775	-7.894***
$R^2(\Delta R^2)$	0.157			0.414(0.257)		
F	14.263***			34.444***		

*** $p<.001$, ** $p<.01$

The data were analys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Ageism

1: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2: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3.5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

노인 인권침해지각이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 관련 경험 매개효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노인 인권침해지각과 노인 차별주의 관계에서 노인 관련 경험의 매개효과 검증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노인 인권침해지각이 노인 차별주의에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310$, $p<.001$), 2단계에서 노인 인권침해지각이 매개변인인 노인 관련 경험에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85$, $p<.05$).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가 함께 투입된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노인 관련 경험은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 = -.396, p < .001$), 독립변수의 β 계수 값이 1단계에서 유의미 하였으므로($\beta = -.157, p < .05$) 노인 관련 경험이 노인 인권침해지각과 노인 차별주의의 관계는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노인 관련 경험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Sobel $Z = -2.031, p < .05$ 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of between perception of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and ageism

Step	Model	B	SE	β	t	Adj R ²
1	1 → 2	-0.301	0.078	-0.310	-3.876***	0.098
2	1 → 3	0.301	0.135	0.185	2.230*	0.027
3	1 → 2	-0.152	0.078	-0.157	-1.948*	0.219
	3 → 2	-0.069	0.014	-0.396	-4.925***	

*** $p < .001$, * $p < .05$, Sobel $Z = -2.031$

1: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2: Ageism, 3.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4. 고찰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는 핵가족화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12]. 이에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20~30대 젊은 세대는 고령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 초고령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의 노인 세대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12]. 특히,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노인 관련 의료와 복지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노인 관련 경험의 중요성을 재고하여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세대 통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8]. 이에 의미 있는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노인 인권침해 지각정도와 노인 차별의식 및 노인 관련 경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노인 인권침해 지각

정도는 전체 평균 5점 만점에 3.01점으로, 신체적 노인 인권침해 지각이 3.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노인 인권침해를 조사한 강과 임[11]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인권침해 지각정도의 전체 평균이 3.07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노인 인권침해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인권침해 지각이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특히, 하위 요인 중 정서적 및 방임적 인권침해에 대한 지각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 평균점수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인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정서적 및 방임적 인권침해의 경우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 확인 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11],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노인 인권침해의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인 차별주의 정도가 5점 만점에 2.62점으로 나타나 노인차별의식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노인 차별의식을 연구한 김과 윤[14]의 연구 결과 노인 차별 의식이 2.0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 평균이 2.0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의미를 같이하였다. 한편, 노인관련 경험정도와 관련한 경험 유무의 응답결과 1.06점으로 나타나 노인 관련 경험이 다소 부족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노인 차별의식을 연구한 김과 윤[14]의 연구에서 노인 관련 경험이 3.08점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노인 관련 경험 유무의 접촉 빈도는 물론 질적 차이를 함께 질문한 설문 문항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치위생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의 정과 김[15]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관련 경험 유무도 중요하지만, 접촉의 질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노인 관련 경험의 접촉 유형과 질적 차이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노인 세대와의 긍정적 경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노인 인권침해 지각은 노인 차별주의와 음의 상관관계를, 노인 관련 경험과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 관련 경험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의 노인 접촉 경험과 노인 차별인식을 연구한 선행 연구[16,17]와 일치하였으며, 대학생의 노인 관련 지식 정도가 증가할수록 노인 차별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의미를 같이하였다. 또한, 노인 대상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전과 이 [18]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한 경우, 노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낮아지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으며, 강과 임[11]의 연구에서도 노인 관련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이에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노인 대상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다면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치과위생사의 노인 인권 및 노인 차별주의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어,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 구강 보건 전문가로서 국민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노인 인권침해지각이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 관련 경험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노인 인권침해를 지각하고 노인 관련 경험 빈도가 증가할수록 노인 차별주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관련 경험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9], 대학생에 대한 노인 관련 교육에서도 노인 관련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교육 후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20], 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즉, 노인 관련 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일으켜 노인 인권침해로 인한 노인 차별주의 감소의 조절 효과로써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의 세대통합 의식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역할을 재고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다양하고 질 높은 노인 관련 경험을 위한 대학교육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인 관련 경험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노인 관련 경험이 증가할수록 노인 인권침해지각이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관련 경험이 노인 인권침해지각과 노인 차별주의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관련 경험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노인 접촉 경험 및 노화 지식과 노인차별인식에 있어서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양 등[16]의 연구 결과 공감 능력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본 연구

와 함께 확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노인 인권침해 지각을 포괄적인 노인 관련 지식으로 보았을 때 상호작용이 필요한 노인 관련 경험과 그 의미를 같이하는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인 차별의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는 데 본 연구 목적과 의미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 능력은 노인차별을 포함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21], 노인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는 노인 관련 경험과 마찬가지로 노인 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므로[16], 노인 관련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 목적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대학생의 노인 관련 경험에 있어서 단순한 접촉 빈도보다 만족도 높은 경험이 노인 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므로[10], 노인 관련 경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노인 관련 경험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즉,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향상을 위한 공감 능력 향상 훈련을 시행한다면 노인에 대한 긍정적 경험으로 노인 인권침해지각으로 인한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노인 관련 경험이 증가할수록 노인 인권침해지각이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관련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노인 관련 경험의 접촉 유형과 질적 차이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노인 세대와의 긍정적 경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노인 인권 및 노인 차별주의 의식 향상은 초고령화 사회의 국민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대통합 의식과 관련한 질 높은 노인 관련 경험을 치위생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5C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노인 관련 경험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될 우리나라

라 젊은 세대의 노인 인권과 노인 차별주의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후속 연구를 통하여 치위생 전공 교육에 있어 노인 관련 경험의 필요성을 재고한다면 고령화 사회의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1549&cid=40942&categoryId=31611>
- [2]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nYN=Y&statId=1994044#A_6.2
- [3] J. A. Son. (2019).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Filial Responsibility on Ageism Behavior: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generational Family Solidar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23(1), 75-99. DOI : 10.18397/kcgr.2019.23.1.75
- [4] J. Y. Yun. (2012). *A Study on Awareness of Elderly People and Their Supporters on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Abuse*. Doctoral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 [5] <https://www.humanrights.go.kr/search/index.jsp>
- [6] H. S. Chang. (2015). *A Study on Ageism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and Japan*.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 [7] H. J. Jeon & K. J. Lee. (2017).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Volunteer Program for the Frail Aged o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Aged and the Awareness of Supporting on the Age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1), 179-207. DOI : 10.21194/kjgsw.72.1.201703.179
- [8] S. Y. Kim. (2020). A Study on the Elderly Oral Health and Elderly Health Attitudes of Dental Hygiene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2), 153-157. DOI : 10.14400/JDC.2020.18.12.153
- [9] J. Y. Lee, Watt R.G, Williams D.M & Giannobile W.V. (2017). A New Definition for Oral Health: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Journal of Dental Research*, 96(2), 125-127. DOI : 10.1177/0022034516682718
- [10] K. S Lee. (2019). *A Study on the image of the elderly and ageism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with a focus on comparing age & gender groups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11] S. Y. Kang & Y. J. Lim. (2018).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9(11), 351-361. DOI : 10.22251/jlcci.2018.18.2.285
- [12] K. Y. Jang & S. E. Heo. (2020). Effect of the elderly-relate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on ageism,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3), 185-194. DOI : 10.22156/CS4SMB.2020.10.03.185
- [13] Y. H. Cho & N. H. Kim. (2019). A Study on attitudes and faith according to experience of taking classes related physical education of the elderl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1), 351-361. DOI : 10.35873/ajmahs.2019.9.11.033
- [14] S. Y. Kim & M. S. Yoon. (2018). Factors Influencing the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1), 369-378. DOI : 10.5392/JKCA.2018.18.11.369
- [15] S. H. Jung & E. H. Kim. (2013). Image toward the elderl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Gangwon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6), 1071-1077. DOI : 10.13065/jksdh.2013.13.06.1071
- [16] J. N. Yang, E. J. Choi & H. S. Kim.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Elderly Contact Experience and Aging Knowledge on the Elderly Discrimination Recognition Using the Empathy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 59-71. DOI : 10.14400/JDC.2020.18.1.059
- [17] M. J. Edwards & I. R. Aldous. (1996). Attitudes to and knowledge about elderly people: A comparative analysis of students of medicine, English and Computer Science and their teachers. *Medical Education*, 30(3), 221-225. DOI: 10.1111/j.1365-2923.1996.tb00746.x
- [18] H. J. Jeon & K. J. Lee. (2017).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Volunteer Program for the Frail Aged o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Aged and the Awareness of Supporting on the Age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1), 179-207. DOI : 10.21194/kjgsw.72.1.201703.179
- [19] J. Y. Kim. (2015). *The perceived threat to elderly*

group on ageist behavior: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emotion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0] S. Y. Kim, T. H. Sohn, S. J. Chang & K. J. Moon. (2016).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erontological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1), 53-84.
DOI : 10.21194/kjgsw.71.1.201603.53
- [21] A. L. Marte. (1988). How does it feel to be old? Simulation game provides into aging experienc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19(4), 166-168.
DOI : 10.3928/0022-0124-19880701-06

장경애(Kyeong-Ae J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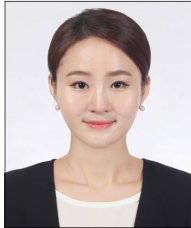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 E-Mail : jka@silla.ac.kr

허성은(Heo, Seong Eun)

[정회원]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5년 2월 ~ 현재 : 신라대 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 융합 연구, 노인구강보건
- E-Mail : js1424@silla.ac.kr